

#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

이종욱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Converged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of Community Dwelling Elderly

Jong-Wook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eongju University, Ph.D. Candidat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우울,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사회참여, 일상생활 활동장에 정도를 파악하고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의 우울에 가장 영향이 높은 변수는 자아존중감 27.9%( $\beta=-.318$ ,  $p<.001$ ), 생활만족도 5.5%( $\beta=-.248$ ,  $p<.001$ ),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4.1%( $\beta=-.200$ ,  $p<.001$ ), 일상생활 활동장에 1.6%( $\beta=.128$ ,  $p=.026$ ) 순으로 이들 네 개의 변수가 노인의 우울을 총 39.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과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제어 : 노인, 우울, 행복감, 자아존중감,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depression, happiness on aging,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disability of daily living activity level of the elderly people, and to analyze the variables to impact on their depression. The study data were analyzed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on the elderly depression were self-esteem with 27.9% of explanatory power ( $\beta=-.318$ ,  $p<.001$ ), followed by life satisfaction with 5.5%( $\beta=-.248$ ,  $p<.001$ ), happiness on aging 4.1%( $\beta=-.200$ ,  $p<.001$ ), disability of daily living activity 1.6%( $\beta=.128$ ,  $p=.026$ ), and 4 variables explaining 39.1% of the elderly depres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fic education programs to reduce depression and to improve self-esteem and happiness on aging of the elderly.

• Key Words : Elderly, Depression, Happiness, Self-esteem, Convergence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의 향상으로 노인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또한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를 넘어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이미 들어섰고 2017년에는 두 배인 1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이처럼 인생 주기에 있어서 노인으로 사는 시간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

\*Corresponding Author : 이종욱(dungjakgol@naver.com)

Received August 31, 2016  
Accepted October 20, 2016

Revised October 5, 2016  
Published October 31, 2016

지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울의 증가인데, 실제로 우울은 노인인구의 약 20~50%에서 나타날 정도로 노인의 가장 흔한 건강문제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2].

2014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 노인들 중 33.1%가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 같은 결과는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심각한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노인이 29.2%로 나타난 것보다 3.9% 증가한 수치이다[4]. 이러한 우울은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함께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노인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건강약화, 경제력저하, 소외감, 고독감, 자아존중감 저하 등의 신체 및 사회적 상실로 인한 우울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5]. 또한 우울은 노인의 삶의 질과 자아통합감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며[6,7], 일상생활활동 및 기능장애, 자살행위와 같은 문제들을 일으켜 노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8], 노인 개인이나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건강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이 지각하는 우울을 예방하고 조절하는 방안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75세 이상의 노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 무학인 경우, 낮은 소득수준, 종교가 없는 경우에 우울감이 더 높았고[5,9,10],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및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았다[10,11,12]. 지각된 스트레스[10],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12,13], 활동 및 참여[14], 노인의 일자리 참여여부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사회참여를 많이 하는 노인일수록 자아실현 동기도 높게 나타났으며[15], 노인일자리 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우울변인이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6]. 또한 웃음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도 사회참여를 활발히 하는 노인일수록 성공적인 노화를 경험하여 스트레스 및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노인의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에 관련성이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우울[11], 가족관계, 신체 및 정신건강, 경제수준, 사회활동과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자아성취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18],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삶의 질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19].

노인은 가족지원 체계와 사회적 지원체계가 약해지면 문제해결의 마지막 대안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 노인의 자살 증가 이면에는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통합 약화, 전통적인 노인부양 기반인 가족지지체계의 붕괴 등이 작용한다[20]. 노인의 자살생각은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및 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노인의 자살생각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된 변수는 건강상태이며 노인이 지각한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및 생활만족도가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2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우울을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우울 영향요인을 통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개지역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사회참여, 일상생활 활동장애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노인의 우울을 예방하고 조절하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우울,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사회참여, 일상생활 활동장애 정도를 파악하고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우울,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사회참여, 일상생활 활동장애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우울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우울,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사회참여, 일상생활 활동장애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우울,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사회참여, 일상생활 활동장애)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자

충청북도에 소재한 5개의 복지관을 방문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2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지남력의 장애가 없으며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2)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대상자 수는 G Power 3.1.7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예측 요인의 수 6개,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는 146명으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230명을 편의 표집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이나 누락된 응답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29부를 제외한 201부를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우울

우울은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GDS)[22]와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Shorter Version: GDS-S)[23]를 수정 및 보완하여 김재중[24]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감 척도는 총 8개 문항으로 우울한 기분, 불안, 무기력, 허무, 불행, 불편, 죽음에 대한 감정을 측정하였으며 긍정적인 문항 3개와 부정적인 문항 5개로 구성되었다. 선택의 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5$ 였다.

### 2.3.2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은 오여경[13]이 개발한 노인의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도구로 관용 9문항, 인정 8문항, 해방감 6문항, 관조 6문항, 평온 3문항, 죽음수용 2문항의 6개 하부 영역으로 구성된 총 3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척도로 총 34문항의 합계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오여경[13]의 도구 개발 당

시 Cronbach's  $\alpha = .94$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였다.

### 2.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은 Rogenberg[25]가 개발한 도구를 전병재[26]가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4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긍정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5$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0$ 이었다.

### 2.3.4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전반적인 생활에서 개인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및 느낌을 말하며 본 연구에 사용된 생활만족도 척도는 LSI-A(Life Satisfaction Index-A)를 박영민[27]이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생활에 대한 만족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영민[27]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남성노인 Cronbach  $\alpha = .88$ , 여성노인 Cronbach's  $\alpha = .89$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였다.

### 2.3.5 사회참여

사회참여는 Weiss[28]가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한 김재중[2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사회모임에서 동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애정, 도움, 격려 및 자신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일치감에서 느끼는 만족 정도(6개 문항), 사회참여에 대한 희망, 정도(4문항) 등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참여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Weiss[28]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김재중[2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2.3.6 일상생활 활동장애

일상생활 활동장애는 Korean Version of Oswestry Disability Index(KODI)[29]를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통

증정도, 개인위생, 물건 들기, 걷기, 앉기, 서있기, 잠자기, 성생활, 사회생활, 여행에 관한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생활 항목을 제외한 9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의 점수는 0점에서 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총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활동 장애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29]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집되었다. 충북 C시에 소재한 5개의 복지관을 방문하여 복지관 관장을 방문하여 각 기관장의 허락을 받았으며,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구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기 힘들거나 원할 경우에는 문항을 읽어주고 답하게 한 후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작성하였다. 연구보조자는 사회복지사 2인이며, 연구자와 자료수집 전 회의를 거쳐 연구목적과 취지 및 설문지 문항에 대해 논의하고 설문지 내용과 설문지 작성 방법에 대해 교육하였다. 연구결과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문지 내용에 대한 회의를 실시하여 충실히 숙지하도록 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간의 일관성 있는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2.5 윤리적고려

대상자에게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를 철회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대상자의 익명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 2.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 1)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우울,

늑어감에 대한 행복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사회참여, 일상생활 활동장애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N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우울, 늑어감에 대한 행복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사회참여, 일상생활 활동장애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Gender	Female	101(50.2)	
	Male	100(49.8)	
Age (year)	60-69	36(17.9)	74.91±5.85
	70-79	128(63.7)	
	80-89	34(16.9)	
	≥ 90	3(1.5)	
Marital status	Unmarried(divorced, Widowed)	75(37.3)	
	Married	126(62.7)	
Education	No Education	19(9.5)	
	Elementary School	55(27.4)	
	Middle School	54(26.9)	
	High School	48(23.9)	
College or Higher		25(12.4)	
Occupation	Yes	32(15.9)	
	No	169(84.1)	
Religion	Yes	102(50.7)	
	No	99(49.3)	
Monthly household income	W1MM or less	114(56.7)	
	W1.01~1.5MM	33(16.4)	
	W1.51~2.0MM	22(10.9)	
	W2.01~2.5MM	13(6.5)	
	W2.51~3.0MM	8(4.0)	
W3MM or more	11(5.5)		
Monthly Pocket money	W100,000 or less	12(8.1)	
	W110,000-200,000	38(25.5)	
	W210,000-300,000	27(18.1)	
	W310,000-400,000	24(16.1)	
	W410,000-500,000	19(12.8)	
W500,000 or more	29(19.5)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4.9세이며 70~79세가 전체의 63.7%로 가장 많았고 남성은 49.8%, 여성은 50.1%로 여성이 많았다. 결혼 상태로는 기혼이 62.7%, 사별이 32.8%로 많았으며 학력은 초졸이 27.4%, 중졸이 26.9% 순으로 많았고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15.9%였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50.7%로 약간 많았으며, 월 가구수입으로는 100만원 이하가 56.7%로 가장 많았다. 한 달 용돈은 11만원~20만원이 2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2 노인의 우울,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사회참여, 일상생활 활동장애의 정도

노인의 우울,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사회참여, 일상생활 활동장애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노인의 우울 정도를 보면 2.42±.62점(범위: 1~5점)으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보였으며,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은 3.01±.36점(범위: 1~4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은 3.64±.66점(범위: 1~5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생활만족도는 3.16±.81점(범위: 1~5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는 3.84±.65점(범위: 1~5점)으로 중간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일상생활 활동장애는 0.86±.70점(범위: 1~5점)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Table 2> The score of Depression, Happiness on aging,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Social participation and Disability of daily living activity

Variables	M±SD	Range
Depression	2.42±.62	1~5
Happiness on aging	3.01±.36	1~4
Self-esteem	3.64±.66	1~5
Life satisfaction	3.16±.81	1~5
Social participation	3.84±.65	1~5
Disability of daily living activity	0.86±.70	1~5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우울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인 성별, 나이, 교육 정도, 직업, 종교, 월 가구수입, 한 달 용돈에 따른 노인 우울은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Differences of the elderly depression level by Characteristics (N=2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Gender	Female	2.38±.63	.80	.422
	Male	2.46±.61		
Age (year)	60-69	2.28±.67	1.69	.169
	70-79	2.46±.60		
	80-89	2.45±.64		
	≥ 90	1.83±.38		
Marital status	Unmarried (divorced, Widowed)	2.59±.63	2.60	.077
	Married	2.43±.61		
Education	No Education	2.22±.71	1.80	.130
	Elementary School	2.45±.67		
	Middle School	2.57±.54		
	High School	2.40±.58		
	College or Higher	2.24±.66		
Occupation	Yes	2.41±.63	-.59	.556
	No	2.48±.61		
Religion	Yes	2.46±.61	.87	.384
	No	2.38±.64		
Monthly household income	W1MM or less	2.42±.64	2.16	.060
	W1.01~1.5MM	2.45±.57		
	W1.51~2.0MM	2.59±.65		
	W2.01~2.5MM	2.63±.34		
	W2.51~3.0MM	2.17±.46		
	W3MM or more	1.95±.69		
Monthly Pocket money	W100,000 or less	2.53±.729	.31	.902
	W110,000-200,000	2.44±.653		
	W210,000-300,000	2.40±.563		
	W310,000-400,000	2.38±.702		
	W410,000-500,000	2.47±.650		
	W500,000 or more	2.34±.526		

### 3.4 노인의 우울,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사회참여, 일상생활 활동장애의 상관관계

노인의 우울과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가족지지, 사회참여 간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노인의 우울과 관련된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가족지지, 사회참여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노인의 우울과 늙어감에 행복감( $r=-.298, p<.001$ )과 자아존중감( $r=-.512, p<.001$ ), 생활만족도( $r=-.384, p<.001$ ), 가족지지( $r=-.264, p=.001$ ), 사회참여( $r=-.211, p=.010$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happiness on aging,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social participation, disability of daily living activity and depression

	Depression	Happiness on aging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Social participation	Disability of daily living activity
Depression	1					
Happiness on aging	-.360** (<.001)	1				
Self-esteem	-.528** (<.001)	.260** (<.001)	1			
Life satisfaction	-.480** (<.001)	.243** (<.001)	.530** (<.001)	1		
Social participation	-.278** (<.001)	.210** (.003)	.435** (<.001)	.324** (<.001)	1	
Disability of daily living activity	-.246** (<.001)	-.131 (.063)	-.202** (.004)	-.111 (.116)	-.152* (.032)	1

### 3.5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사회참여, 일상생활 활동장애의 총 5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노인의 우울에 가장 영향이 높은 변수는 자아존중감으로 27.9%(β=-.318, p<.001)의 설명력이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생활만족도는 5.5%(β=-.248, p<.001),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4.1%(β=-.200, p<.001), 일상생활 활동장애는 1.6%(β=.128, p=.026)로서 이들 네 개의 변수가 노인의 우울을 총 39.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depression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5.071	.333		15.208	<.001
Self-esteem	-.302	.064	-.318	-4.719	<.001
Life satisfaction	-.191	.051	-.248	-3.741	<.001
Happiness on aging	-.346	.101	-.200	-3.429	<.001
Disability of daily living activity	.115	.051	.128	2.244	.026
Adjusted R <sup>2</sup> =.378, F=31.438, p<.001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의 조건을 검정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가 .684~1.000으로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00~1.031로 10을 넘지 않았다. 상태지수는 1.000~1.463으로 30을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외하였다. 또한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39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 분석 결과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가 -1.247~1.607로 등분산성을 만족하였고 정규성도 확인되었다.

## 4.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사회참여, 일상생활 활동장애의 정도를 파악하고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우울 정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75세 이상의 노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 무학인 경우, 낮은 소득수준, 종교가 없는 경우에 우울감이 더 높았다[5,9,10]는 선행 연구결과와 성별, 교육수준, 건강보험가입유무, 방문건강관리대상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30]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어 일반적 특성 및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노인 우울의 정도는 2.42점(범위: 1~5점)으로 중간 정도의 우울을 나타냈다. 이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재중[24]의 연구에서 2.25점(범위: 1~5점),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혜경과 김희경[12]의 연구에서도 2.44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도시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미선[31]의 연구에서 5.65점(0~15점)으로 나타났으며,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박경순, 박영란과 염유식의 연구[32]에서는 11.56점(범위: 0~56점)으로 나타나 도시노인의 우울 정도가 농촌 노인의 우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의 노인들이 농촌 지역의 노인들보다 우울 성향이 더 높음을 나타내고, 도시 지역의 노인이라도 취약계층 노인은 우울 성향이 높다는 최미선[31]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노인 우울의 경우 다른 건강문제라든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아 우울 증상을 스스로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촌 노인의 우울 정도가 도시 노인의 우울의 정도보다 낮은 것은 시골 이웃들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소속감 부여 및 농사일 등의 참여로 인한 자신의 존재감 경험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의 우울과 관련된 늑어감에 대한 행복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가족지지, 사회참여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노인의 우울과 늑어감에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가족지지, 사회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노인의 우울에 가장 영향이 높은 변수는 자아존중감으로 27.9%의 설명력이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만족도는 5.5%, 늑어감에 대한 행복감 4.1%, 일상생활 활동장에는 1.6%로서 이들 네 개의 변수가 노인의 우울을 총 39.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취약성 모델(Cognitive Vulnerability model)은 인지적 맥락에서 우울을 발생시키는 개인·심리적 요인을 이해할 수 있는데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또한 자아존중감이 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33], 우울은 노인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4].

제가노인 및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소영[35]의 연구에서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우울을 21.9% 설명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김이철과 백진아[36]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ahlberg와 McKeef[37]는 고독감을 감정적 고독감과 사회적 고독감으로 구분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은 각각 노인의 감정적 고독감과 사회적 고독감의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밝혔다.

김재중[24]의 연구에서 65세 퇴직이후 노인들에게 있어서 사회활동의 적극적 참여는 긍정적 자아감을 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노화의 수준을 높였고, 최미선[31]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았다. 또한 우울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은 건강증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력과 사회적지지를 매개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8].

생활만족의 경우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파악되었으므로 노인의 욕구에 맞는 생활지원 및 일자리 알선 및 다양한 일자리 참여 기회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중요하다.

오여경[13]의 연구에서 우울과 늑어감에 대한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우울성향이 늑어감의 행복감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윤미영[19]의 연구에서 또한 우울이 낮을수록 늑어감에 대한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해경과 김희경[22]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같은 연구결과를 보여주었고 늑어감에 대한 행복감이 우울에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양남영과 문선영[21]의 연구에서 노인의 자살생각과 사회적지지, 생활만족도, 건강상태 간 상관관계를 보였고, 건강상태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본 연구에서 일상생활 활동장애 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상생활 활동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매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기존의 질병 관리 및 질병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우울 증상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장애를 유발하게 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노인의 우울을 예방하고 우울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한 중재가 요구되며 적절한 사회활동과 참여를 통해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며,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노인의 우울 영향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늑어감에 대한 행복감을 규명하였으며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늑어감에 대한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향요인으로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참여는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인의 자아존중감, 늑어감에 대한 행복감, 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 활동장애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이에 포함시켜 운영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노인의 우울,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사회참여, 일상생활 활동장애의 정도를 파악하고,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 27.9%, 생활만족도 5.5%,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4.1%, 일상생활 활동장애 1.6%로서 이들 네 개의 변수가 노인의 우울을 총 39.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일개지역의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대상이 대표성을 지닐 수 있도록 표집대상을 확대하고 다른 변수를 포함한 반복연구를 통해 노인의 우울 영향요인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인의 자아존중감,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생활만족도와 사회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이에 포함시켜 운영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5 Elderly Statistics", <http://kostat.go.kr>
- [2] E. A. Park, I. S. Lee, "Factors affecting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women in poverty",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 community health*, Vol. 34, No. ), pp. 5-13, 2009.
- [3] Statistics Korea, "2014 Senior Survey", <http://kostat.go.kr>
- [4] Statistics Korea, "2015 Senior Survey", <http://kostat.go.kr>
- [5] H. J. Lee, "Longitudinal changes in depression in older adults: Differences across ag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61, pp. 291-318, 2013.
- [6] S. Y. Lee, E. J. Kim, "The social support patterns and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ir friends and neighbor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6, pp. 137-164, 2012.
- [7] H. S. So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Depression, Walking and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Focusing on the Moderation Effects of Walk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8. pp. 515-525, 2016.
- [8] S. Cullum, S. Tucker, C. Todd, C. Brayne, "Screening for depression in older medical inpati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 21, No. 5, 469-476, 2006.
- [9] Seok-Jun Kim, "The study on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of the senior citizens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those living urban area and rural area", M.S. thesis, Hanseo University, 2012.
- [10] O. S. Cho, J. I. Kim, Y. M. Kim, "A Study on Sleep Quality and Geriatric Depression in the Elderly between Hospital and Senior Welfare Service Center",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3, No. 2, pp. 493-507, 2013.
- [11] Seung-Ho Jang,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Elderly," M.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14.
- [12] H. K. Lee, H. K. Kim, "Effect of Happiness on Aging,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Family Support, and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on the Depression", Vol. 10, No. 17, pp. 37513-37520, 2015.
- [13] Yeo-Kyung Oh, "The development of an analytic instrument for correlation inquiry of perceived happiness and advancing in years", Ph.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11.
- [14] N. Fairhall, C. Sherrington, S. E. Kurrle, S. R. Lord, I. D. Cameron, "ICF participation restriction is common in frail, community dwelling older people: An observational cross sectional study", *Physiotherapy*, Vol. 97, No. 10, pp. 26-32, 2011.
- [15] J. Y. Han, W. K. Lim,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Motive Level of the Volunteer Activities on the Social Capital Convergence Forma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6. pp. 39-53, 2015.
- [16] S. W. Lee, H. J. Song, H. J. Nam, H. Y. Yeom,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 between Work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Korean Elderly”,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Vol. 7, No. 1, pp. 57-68, 2015.
- [17] D. Y. Lee, H. Y. Seo, B. C. Lee, G. H. Jung, “Development and Effects of Laughter therapy program in Geriatric successful aging and Stress i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199-208, 2016.
- [18] S. J. Lee, E. W. Jeon,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Happy Lives of the Elderly and Relevant Variabl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20, No. 1, pp. 113-131, 2015.
- [19] Mi-Young Yoon, “Factors Predicting on Happiness Related to Aging among Older Adults”, M.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2.
- [20] H. S. Kim, “A Comparative Study on Elderly Suicide Rat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Its Implic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2, pp. 427-435, 2016.
- [21] N. Y. Yang, S. Y. Moon, “The Effects of Suicidal Thought on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 10, No. 11, pp. 515-524, 2012.
- [22] J. A. Yesavage, T. L. Brink, T. L. Rose, O. Lum, V. Huang, M. Adey, V. O. Leire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Vol. 17, No. 1, pp. 37-49, 1983.
- [23] J. I. Sheikh, J. A. Yesavage, “9/Geriatric Depression Scale(GDS): Recent Evidence and Development of a Shorter Version”, *Clinical Gerontologist*, vol. 5(1/2), pp. 165-173, 1986.
- [24] Jae-Joong Kim,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for Successful Aging”, Ph.D.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2008.
- [25]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6] B. J. J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Publications, Vol. 11, No. 1, pp. 109-129, 1974.
- [27] Young-Min Park,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nd Life Satisfaction Between Elderly Men and Women”, M.S. thesis, Inje University, 2011.
- [28] R. Weiss,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NJ: Prentice Hall, Doing unto Others, pp. 17-26, 1974.
- [29] C. H. Jeon, D. J. Kim, S. K. Kim, D. J. Kim, H. M. Lee, H. J. Park, “Validation in the Cross-Cultural Adapt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Oswestry Disability Index”,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Vol. 21, No. 6, pp. 1092-1097, 2006.
- [30] S. O. Seo, A. Y. So,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of the Community-dwelling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ic Community Health Nurse*, Vol. 27, No. 1, pp. 1-8, 2016.
- [31] Mi-Sun Choi,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of the Elders Residing in a Community”, M.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2.
- [32] K. S. Park, Y. R. Park, Y. S. Yum, “The Influence of the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Exchange on the Depressive Symptom of Rural Elderl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68, pp. 273-301, 2015.
- [33] H. S. Kim, “A meta 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suppression of depression of in-hom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26, pp. 241-266, 2013.
- [34] M. J. Kwon,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Cognition,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171-176.
- [35] S. Y. Lee, “Influencing Factors of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in Elderly”, *J Korean Acad Soc Home Care Nurs*, Vol. 19, No. 2, pp. 150-161, 2012.
- [36] Y. C. Kim, J. A. Park, “The Effects of Family Conflict,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7, pp. 279-287, 2016.
- [37] L. Dahlberg, K. J. McKee, “Correlates of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in Older People: Evidence

from an English Community Study”, Aging and Mental Health, Vol. 18, No. 4, pp. 504-514. 2014.

- [38] S. H. Cho, "Factors affecting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the Low-Income Elderly Living Alone-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2, pp. 423-431, 2015.

#### 저자소개

이 중 욱(Jong-Wook Lee)

[정회원]



- 2007년 8월 : 청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2006년 3월 ~ 현재 : 두원공대 겸임교수 등

<관심분야> : 정신건강, 인권, 사례관리, 노인